

트럼프-푸틴 회담 보류 직후 러시아, 우크라 대공습

러, 우크라 북부에 드론 대규모 폭격
수십만 가구 정전·어린이 등 10여명 사상
러 화학공장 타격 맞불...무력 충돌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상회담이 돌연 보류된 외중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1일(현지시간) 무력 공방을 주고받으며 충돌 수위를 끌어올렸다.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니히우주(州) 구조 당국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노브고로드-시베르스키 지역에 적들이 드론 공격을 가해 초기 조사 결과 4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쳤다”며 “사상자 가운데는 10세 아동도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도 이날 체르니히우주 주도인 체르니히우에 대규모 드론 공격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이 지역의 모든 전력 공급이 끊겼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전쟁 발발 전 이곳에 약 100만명이 살고 있었다며 이번 드론 공습으로 수십만명이 정전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체르니히우는 러시아 국경에서 약 32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으로 최근 몇 주간 러시아의 잦은 드론·미사일 공격으로 이미 수차



소방관이 22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한 자포로지야에서 소방관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자포로지야 지역 우크라이나 국가 비상 서비스영상의 스크린샷. /REUTERS=연합뉴스

레 정전이 발생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겨울철을 앞두고 에너지 공급에 차질을 빚게 만들기 위해 주요 전력 시설에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 중이

다. 지난 11일에는 수도 키이우 에너지 시설이 러시아의 대규모 드론·미사일 공습을 당해 키이우 대부분 지역의 전기가 끊겼다 복구되기도 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이날 텔레그램 이용해 성명을 내고 러시아 남부 접경지인 브란스크 화학 공장에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습에 사용된 스톱새도 미사일이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을 관통했다”며 “공습 결과를 평가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공장이 폭약, 로켓연료 등을 생산하는 러시아 내 핵심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격에 대해 알렉산드르 보고마즈 브란스크 주지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드론과 미사일을 이용해 이 지역에 공격을 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나 부상자는 없고 피해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늦게 브란스크 지역 상공에서 드론 57대를 격추했다고만 말했다. 2주내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릴 것으로 보였던 미러 정상회담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당분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상대측 주요 시설을 겨냥한 공습 규모와 횟수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뉴욕타임스와 AFP통신은 의령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 만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푸틴과의 회담이 취소됐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나는 쓸데없는 회담을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회담 개최 가능성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

‘주한미군 규모 유지’ 美상원통과 국방수권법안 최종명시

2만8천500명 ↓ 감축시 예산 사용 불가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재조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강하게 권고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2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국방수권법안(NDAA) 상원 통과본 전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8천500명 밑으로 감축하는 데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담았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상·하원의 최종 조율을 거쳐 이 내용이 확정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주한미군 감축에 나설 경우 의회가 행정부를 견

제할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수권법의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트럼프 1기 시절에 의회가 행정부의 일방적인 감축을 견제하기 위해 2019-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됐다가 이후 바이든 행정부 들어 사라졌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5년 만에 재등장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행위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을 하고자 할 경우 이것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 등 동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보증하는 확인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방수권법에 따라 예정된 예산 사용은 이 같은 확인서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금지된다. /연합뉴스

‘겨울왕국’ 아이슬란드서 모기 첫 발견…지구 온난화 경고등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처음으로 모기가 발견되면서 기후 변화의 영향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21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아이슬란드 자연과학연구소 소속 곤충학자 마티아스 알프레드손은 최근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지역에서 줄무늬모기(Culiseta annulata) 3마리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발견된 모기는 암컷 2마리와 수컷 1마리로, 나방 등을 잡기 위해 설치해놓은 장치에 의해 포획됐다. 이 장치는 설장과 와인을 섞은 용액을 묻힌

줄로, 단 것을 좋아하는 곤충을 유인한다. 국가명에 ‘얼음’(Ice)이 들어가 있는 유일한 나라인 아이슬란드는 추위 등 혹독한 기후로 인해 남극과 더불어 지구상에서 모기가 서식하지 않는 곳이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자연환경에서 모기가 발견된 것이다. 기온 상승과 더불어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은 따뜻해지면서 기후가 변화했고 이에 모기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된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아이슬란드는 방하가 녹고 더 따뜻한 바다에서 잡히는 어종이 앞바다에서 발견되는 등 북반구의 다른 지역보다 4배 더 빠른 속도로 온난화

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다만 알프레드손은 이번에 발견된 모기 3마리가 “선박이나 컨테이너를 통해 최근에 유입됐을 수 있다”며 모기의 확산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불철에 추가적인 모니터링 시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견이 더 따뜻한 기후로 설명되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그는 “이 종이 추운 기후에 잘 적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길고 혹독한 겨울을 견딜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38노스 “북한 서해위성발사장서 소형엔진 시험 상황”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최근 엔진 시험을 진행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38노스는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촬영된 위성 사진을 분석 “(발사장의) 수직엔진시험대(VET

S) 주변의 활동은 최근 소형 엔진 시험이 실시됐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이달 4일 위성 사진을 보면 수직엔진시험대 하단에 위치한 배기가스 배출구에서 약간의 연소 흔적이 확인된다. 특히 이 흔적은 주황색을 띠고 있는데, 이는

엔진에 연료와 함께 질산 또는 질소사산화물을 사용했음을 암시한다고 38노스는 설명했다. 북한은 발사체에 비대칭 디메틸히드라진(UDMH)을 연료로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UDMH는 주로 질소사산화물과 같은 산화제와 반응시켜 추진 연료로 쓴다. 아울러 지난달 27일 위성사진에서는 수직엔진시험대 주변의 모습이 변화한 점도 확인됐다. /연합뉴스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

CMYK